

전폐절제술후의 합병증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흉부외과학교실

문광덕·손상태·김병일·강정호·김영학·정원상·김혁·지행욱

폐암이나 폐결핵, 폐농양, 기관지 확장증등 흉부외과 영역의 많은 질병에 있어서 연령등에 따라 개흉술 특히, 전폐절제술 전의 환자의 폐기능 상태를 평가하고 술후 합병증의 증례분석을 함으로써 술후 환자 관리 및 술후 경과를 예측하는데 보다는 지표로 삼기 위하여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흉부외과학교실에서는 1990년 6월부터 1996년 8월까지 126례의 전폐절제술례를 대상으로 임상적 평가를 실시하였다.

1. 전체환자 126명중 2명이 사망하여 1.59%의 수술후 사망율을 나타내었다.
2. 환자의 연령분포는 12세에서 76세까지였고 평균 46.7세 이었다. 폐암의 경우에 있어서는 50~60세에서 69.7%로 가장많은 빈도를 보였으며 폐결핵의 경우에 있어서는 30~40세에서 55.4%로 가장 많은 빈도를 나타내고 있었다.
3. 환자의 성별분포는 폐암의 경우는 남자 51명, 여자13명이었고, 폐결핵의 경우는 남자 26명, 여자 24명이었다.
4. 원인질환으로는 폐암이 64례, 폐결핵이 50례, 폐농양이 2례, 기관지확장증이 6례, 아스필질-로시스가 2례, 감염성 낭종이 1례, 외상에 의한 양측 기관지파열이 1례있었다. 폐암의 경우, 우측 대 좌측의 발병비율은 1:61 이었고 폐결핵의 경우는 우측 대 좌측의 발병비율은 16:2 이었다.
5. 술전 폐기능검사소견상 평균폐활량은 2.61 L(85.48%) 이었고 정상 호흡기량은 0.73 L, 노력 성폐활량은 2.64 L(73.04%)이고 1초간 노력성호기량은 1.92 L/sec(66.92%)이며 최대 자발 성호흡량은 60.72 L/min (62.6%)이었다. 폐활량은 1.44 L에서부터 4.36L까지 노력성폐활량은 1.32 L에서부터 5.04 L까지, 1초간 노력성호기량은 0.78에서 3.6까지 최대 자발성호흡량은 32.1%에서 124.6%로 다양하였다.
6. 1초간 노력성호기량은 1.00 L/sec 이하의 고위험군에 있어서 전폐절제술을 시행한 결과 평균 입원일 수가 평균 33.8일로 1초간 노력성호기량이 2.0 L/sec 이상의 평균 32.1일과 차이가 없었으며 호흡부전등의 합병증도 발생하지 않았다.
7. 환자의 입원전 가장 흔한 증세는 기침(46.0%)이었고 두번째는 호흡곤란(37.3%) 이었다.
8. 전폐절제술 후에 나타나는 초기 합병증으로는 흉강천자를 필요로 했던 종격동편위(29.4%), 빈맥성부정맥(9.5%), 심방세동(7.9%), 상대정맥증후군(2.4%), 혈소판감소증(2.4%), 창상감염(2.4%) 등이 있었고 그 외, 수술후 출혈, 폐부종, 객혈, 폐염, 기관지경련, 빈뇨증 등이 있었다. 후기 합병증으로는 농흉이 6.3%이고 폐염이 4.0%, 기관지 흉막루가 2.4%, 흉막경피누공 1.6%, 애성 0.8%, 상대정맥 증후군 0.8%등이 있었다.
9. 폐암의 수술전 병기는 전체 64례중 병기결정이 가능한 61례중 I이 6례, II가 12례, IIIa가 33례, IIIb가 10례 이었고 수술후 10례에 있어서 병기가 바뀌었다. 병기가 높아진례가 4례 낮아진례가 6례였다. 수술후 병기는 I이 5례(8.2%), II가 12례(19.7%), IIIa가 35례(57.4%), IIIb가 6례(9.8%), IV가 3례(4.9%) 이었다.